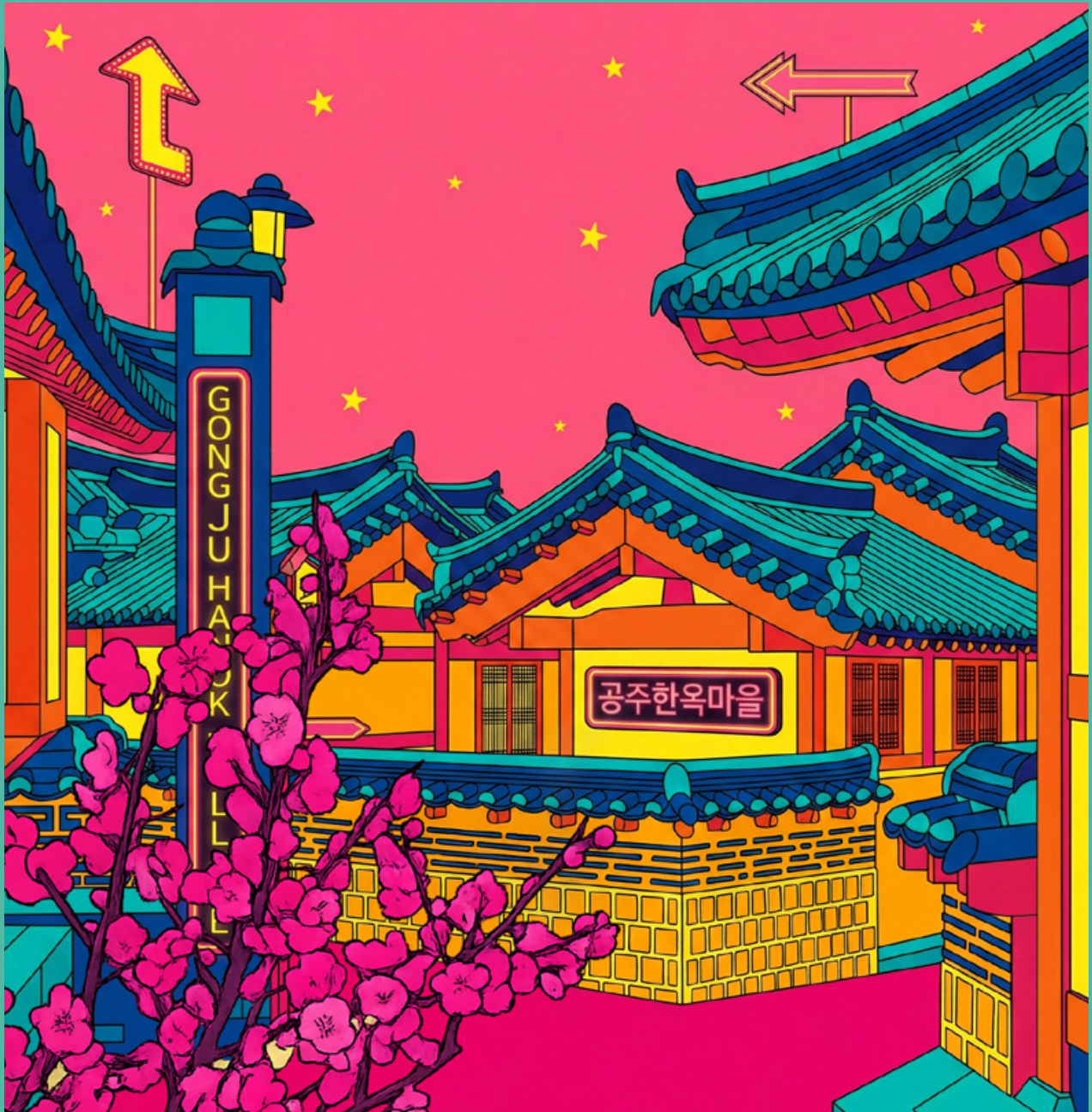


흥미진진 공주

2026.03

Vol. 372



GONGJU + SNS

SNS로 만나는 공주의 일상

@skansw5798(천안시)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가득했던 겨울공주 군밤축제. 내년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금강산도_식후경 #축제의즐거움

@gunchul7(공주시)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서 세종에서 공주로 귀촌했어요. 농어촌공사의 친절함 설명 덕에 앞으로의 공주 생활이 기대됩니다.
#공주로_귀촌했어요 #초보농부도전기

@mindu1(대전시)



겨울공주 군밤축제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 한잔. 설을 앞두고, 서로의 한해를 응원했습니다. 정 많은 공주라 더 따뜻합니다.
#겨울공주군밤축제 #새해복많이받으세요

@cmvm35(서울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의 인파로 후끈하네요. 올해 겨울공주 군밤축제도 맛과 멋으로 겨울을 데웁니다.
#공주시겨울대표축제 #화롯불군밤은.꿀맛

일상에서 발견한 작지만 반짝이는 순간들.
2월의 공주를 아름답게 기록해 준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보내주신 사진과 이야기는 편집을 거쳐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Contents

2026 MARCH
VOL. **372**

공주를

04

TRACK 01

공주 핫스팟

불타는 밤, 달콤했던
공주의 모든 순간을 담다

08

TRACK 02

공주 코믹스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
제3장. 질풍과 노도
13화 십일이륙(11.26)의 충성

공주답게

10

공주 그래피

그들이 꿈꾸던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기에

12

공주 지킴이

공주의 시간을 걷고,
희망의 씨앗을 심다
'(재)명학장학회 최석원 이사장'

14

제철 레시피

입안 가득 퍼지는 봄의 기운
'냉이 알밤된장 리조또'

16

공주 취향일기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난 우리,
'고마동창생'

소중히

18

공주 서포터즈

20

공주 알림

22

시민 기자

24

의회 소식

기록합니다

28

문화 캘린더

이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30

기부소식

31

이달의 색칠 공주

32

공주말 학력고사

발행일 2026년 3월 1일
발행인 공주시장
발행처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편집위원 윤용혁 황교수 유환권 양진모



흥미진진공주 통권 372호 공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층, 문맹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점자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 구독 신청이나 취소, 주소 변경 및 지인 구독 추천에 대한 문의는 홍보미디어실(041-840-84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정 문의 1899-0088 | 041-840-3800



사진으로 돌아보는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불타는 밤, 달콤했던 공주의 모든 순간을 담다

화롯불 위에서 툭툭 튀는 알밤 소리와 함께 공주의 겨울이 뜨겁게 타올랐다. '불타는 밤, 달콤한 공주'를 주제로 열린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가 5일간 총 34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금강신관공원을 가득 채운 고소한 밤 향기와 손 끝에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는 추위를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가족, 친구, 반려동물과 함께 나누며 겨울의 낭만을 만끽했던 시간. 뜨거웠던 열기와 달콤한 추억이 공존했던 그 찰나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다시 마주해보자.





관람객들은 지름 2m의 대형 화로 앞에서 직접 알 밤을 굽고 함께 나눠 먹으며 겨울 축제 특유의 정취를 누렸다. 또 간식만들기, 소품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추억을 만들었다.



개막선언



2026. 03. 17. 일



눈썰매장과 회전 썰매를 갖춘 미르섬에서는 아이들이 평소에 즐기기 어려운 겨울 놀이를 마음껏 즐겼다.





무령왕의 62년 생애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 제3장/질풍과 노도

13화 십일이륙(11.26)의 총성

만화:최 현 정/ 대본 자료:무령왕국제네트워크

정치에는 늘 야심을 품은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야. 동성왕 때 야심가는 동성왕 말년에 등장한 위사좌평 백가였어.

그는 공주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 웅진천도 이후 중앙 정치에 일정한 지분을 갖게 된 백씨 집안 사람이었어. 동성왕의 백가 신임은 특별하였지.



위사좌평 백가-

그러나 백가의 권세가 점점 도를 넘으면서 동성왕에게 신뢰를 잃게 돼. 결국 백가는 새로 축성 중인 사비 남쪽 가림성의 성주로 내쫓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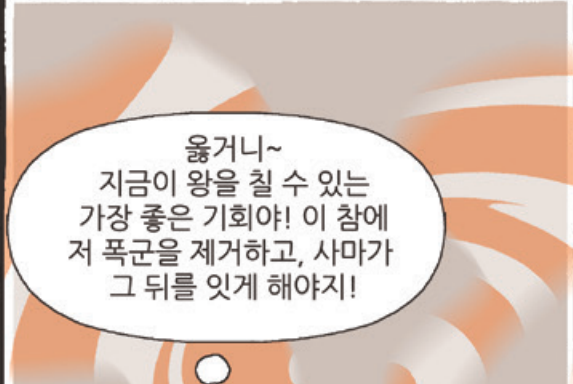
*위사좌평-왕의 경호실장.

웅진

가림성(부여 임천)

분노에 찬 백가는 거사를 결심했어.

사냥은 일종의 군사훈련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501년 겨울, 왕은 예정대로 사냥을 나갔어.

오랜만에 기량을 발휘하고 싶구나. 사비 서쪽 마산(한산)으로 가보자.



하지만 그날은 하루종일 폭설이 내렸어.



사냥에 지장이 생기자 동성왕 일행은 예정에 없이 마포촌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경호에 구멍이 뚫려버렸지.



왕의 경호병 중에 백가의 심복이 있었던거야.



갑작스러운 공격에 동성왕은 미처 피할 틈이 없었지만, 왕은 경호 병력이 바로 대응하여 현장에서 절명하지는 않았어. 그날이 바로 11월 26일이었지!

중상을 입은 왕은 날이 밝은 후 금강 물길을 이용하여 바로 웅진으로 후송되었단다.



동성왕이 사냥터에서 크게 다쳐서 돌아오던 날, 도성에서는 이런 노래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였어.



이 만화는 상상과 픽션을 자유롭게 섞어, 무령왕의 생애를 재구성 한 것입니다.





장소 공주영명고등학교 만세운동 벽화 | 영명학당2길 33

그들이 꿈꾸던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기에

1919년 4월 1일, 영명학교 언덕은 자유를 향한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벽화 속에 담긴 함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으로 전해지며, 조국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수많은 영웅들의 진심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이 지켜낸 평화로운 세상 위에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공주의 시간을 걷고, 희망의 씨앗을 심다

(재)명학장학회 최석원 이사장

글 장희주 사진 강병삼

같아도 같아도 모자란, 영원한 내 마음의 고향

“공주는 나에게 꿈이자 삶이고,
역사이자 미래입니다.”

공주에서 나고 자란 최석원 이사장은 학업을 위해 잠시 타지에 머문 시간을 제외하면 단 한번도 공주를 떠난 적이 없다. 국립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이자 총장을 역임한 그는 지질 연구와 교육,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해 왔다. 학문적 여정 역시 공주의 땅과 역사를 향해 있었고 오랜 세월 공주와 함께하며 지질과 문화유산이 깊이 맞닿아 있음을 평생에 걸쳐 밝혀 왔다.

“지질학도 결국 역사입니다. 석탑의 돌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그 시대의 생활상이 보이고, 풍화되는 탑의 시간을 늦추는 방법 또한 지질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명학장학회 최석원 이사장에게 공주는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자 늘 감사한 고향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의 반열에 올리며 공주의 과거를 세상에 알렸던 그는, 이제 공주의 미래를 키우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다. 명학장학회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그의 따뜻한 여정을 따라가 본다.

40여년간 ‘기록 이전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매진한 그의 학문적 토대는 백제 문화유산을 바르게 읽어내는 나침반이 됐다.

이 토대를 바탕으로 최 이사장은 2001년 ‘충남 세계문화유산 추진위원회’를 직접 창설하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어 2010년 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장을 맡아 축제의 방향을 설계했고, 15년간 발로 뒀던 끝에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의 열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에도 ‘백제문화제 전환기 학술대회’를 여는 등 백제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밑바탕에는 공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보태주는 시민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공주가 저를 길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그 마음을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조금씩 되돌려드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공주에 진 빛을 갠 마음으로,
여전히 공주의 시간을 걷는 사람**

진심이 닿은 곳이 바로 명학장학회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명학장학회는 매년 15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진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들이 자라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장학의 본질입니다.”

또한 명학장학회는 사회적기업 ‘희망사다리’를 통해 시민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세계 곳곳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된다. 특히 6·25 참전 우방국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공주 지역 참전용사들을 위한 위로 오찬은 명학장학회만이 지닌 특별한 행보다.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선조가 보여준 도움을 기억하며,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요. 또한 지금의 일상을 있게 한 공주 지역 참전용사분들께도 매년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분명하다. 5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7일부터 이미정갤러리 특별 전시를 열어 장학 재원을 마련하고, 매년 11월에는 각 분야 공로자를 기리는 ‘명학대상’ 시상식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명학장학회 건물 2층에는 공주의 세계문화유산과 공주·충남의 자료를 모은 작은 도서관이 들어선다. 이 공간은 공주시 시니어들이 직접 꾸려간다. 장학회는 이를 통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며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이 호흡할 계획이다.

최 이사장에게 앞으로의 ‘꿈’을 묻자, 그는 “꿈은 없지만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궈온 일들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그의 희망이다. 그 희망을 품은 채, 최 이사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 위에서 공주의 미래를 조용히 이어가고 있다.



(재)명학장학회

명학장학회는 1976년 설립 이후 48년간 총 4,0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매년 15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한국전쟁 시에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병과 의료, 물자를 지원해 준 우방국에서 충청권에 유학 온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매년 펼치고 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찾아왔다. 우리 몸은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겨울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을 필요로 한다. 이때 겨우내 대지의 영양분을 듬뿍 머금고 돌아난 봄나물은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다. 구수한 알밤된장에 향긋한 냉이를 더한 리조또는 나른했던 기운에 기분 좋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향긋한 리조또 한입으로 겨우내 잠 들었던 입맛을 다시 깨워보자.

입안 가득 퍼지는 봄의 기운

냉이 알밤된장 리조또

글 김채은 사진 여승엽
도움 요리연구가 김정미





재료 및 분량

불린 쌀 250g 모시조개 300g 냉이 60g 양파 1/4쪽, 마늘 2알, 공주알밤 된장 1큰술, 올리브유 1큰술, 버터 10g 화이트 와인(정종) 30ml, 다시마 육수 550ml, 후추와 참기름 약간

만드는 법



1

쌀과 다시마는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뒤, 쌀만 체에 밍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냉이는 시든 잎을 떼어내고 단단한 줄기 끝부분을 잘라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2

다시마 육수에 물과 모시조개를 넣고 끓인 후 조개 입이 벌어지면 화이트 와인을 살짝 넣는다. 조개는 따로 건져 두고 육수는 따뜻하게 유지한다.



3

달궜진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을 볶는다. 향이 올라오면 불린 쌀과 된장 1큰술을 넣고 중불에서 1분간 더 볶아준다.



4

준비한 육수를 한국자씩 넣으며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젓는다. 이 과정을 3~4번 반복하며 쌀 안쪽까지 간이 배도록 충분히 익힌다.



5

건져두었던 조개와 버터를 넣어 풍미를 더하고, 마지막에 냉이를 투하해 가볍게 볶는다. 후추와 참기름으로 맛을 완성한다.

TIP 1

육수는 꼭 따뜻하게!

차가운 육수를 부으면 팬 온도가 떨어져 쌀알이 퍼지기 쉽다. 육수를 약불에 계속 데워두며 조금씩 부어야 리조또 특유의 톡톡 터지는 식감이 살아난다.

TIP 2

냉이는 마지막에 넣기!

냉이는 열에 약해 오래 볶으면 향과 색이 금방 변한다. 요리 마지막 단계에 넣고 가볍게 버무려야 봄의 향긋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TIP 3

신선한 냉이 고르는 법

잎과 줄기가 작고 부드러운 어린 냉이가 맛있다. 뿌리가 너무 굵거나 단단하지 않고, 잔털이 적은 것을 고른다. 뿌리가 곧고 하얀색을 띠며, 잘랐을 때 단면이 촉촉한 것이 좋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냉이의 힘

냉이는 ‘봄나물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비타민A와 C가 풍부해 봄철 춘곤증을 쫓고, 몸에 활력을 주는 데 으뜸이다. 채소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며, 칼슘과 철분이 많아 성장기 청소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히 뿌리에 든 ‘콜린’ 성분은 간의 해독을 도와 몸속 독소를 빼주는 기특한 역할까지 한다. 다만 냉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몸이 찬 편이라면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곁들이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무대 위에서 다시 청춘을 꺼내 드는 사람들이 있다. 시작은 2023년 공주시민대학 프로그램인 ‘중장년 꿈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극 수업이었다. 그곳에서 이들은 발성법을 익히고 대사를 맞추며 또 다른 나와 마주했다. 공주의 아픈 역사를 보듬고 이웃의 사소한 슬픔을 위로하며, 열정 하나로 공주의 숨은 이야기를 채워가는 연극 동아리 ‘고마동창생’의 특별한 커튼콜이 이제 시작된다.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난 우리,

‘고마동창생’

글 장희주 사진 강병삼

‘연극’이라는 이름, 새로운 인생의 문

이들의 첫 작품 ‘고마동창생’은 공주를 상징하는 ‘고마(곰)’와 배움의 벼를 뜻하는 ‘동창생’을 합쳐 만든 이름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들이 ‘연극’이라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인 건 순수한 호기심에서였다.

직업도 나이도 달랐지만, 서툰 발성과 어색한 몸짓을 익혀가며 무대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연극은 회원들이 나눈 대화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을 지도한 임선예 선생이 집필했다. 주택청약 당첨 소식의 설렘부터 반려견과 살겠다는 자식의 선언 앞에서 터져 나온 한탄까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던 일상의 장면들이 무대 위에서 하나의 서사로 엮였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전율과 아쉬움이 남은 이들은 단순한 수강생을 넘어 진짜 ‘동창생’이 됐고 마음을 모아 공주의 색깔을 담은 연극 동아리 고마동창생을 결성했다.

연극으로 올린 공주의 숨은 역사

고마동창생은 연극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공주가 품은 역사적 이야기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며, 직접 대본을 써 무대에 올리기에 더 특별하다.

출발점에는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에서 해설사로 활동하는 박현희 회원이 있었다. 우금티추모예술제를 계기로 고마동창생은 관련 자료를 함께 찾아 읽고 토론하며,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배웠다. 그렇게 완성한 창작극 ‘공주, 동학을 펼치다’는 단순한 재현이 아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이후 무대는 더욱 넓고 깊은 공주의 역사로 이어졌다.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 가기 전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사실, 열사의 오빠가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는 기록처럼 지역 안에서도 비교적 덜 알려진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한 공주 상왕동의 작은 골짜기 ‘왕촌 살구쟁이’가 한국전쟁 당시 수백명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비극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며, 외면돼 온 지역의 아픈 기억을 무대 위로 끌어 올렸다. 공연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객석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렸고 고마동창생에게도 그날은 연극을 넘어 기억과 위로의 시간으로 기억된다.

좌측부터
박현희, 김권일,
정용구, 양상은, 신경미,
오경숙, 임선예,



무대를 만드는 힘, 결국 '사람'

역사극 작업은 무대가 지역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는 힘이 됐다. 그 열정은 공주 밖에서도 빛을 발했다. 고마동창생은 제5회 충남아마추어연극제에서 작품 '고마동창생'으로 단체 은상을 수상했다. 특히 1인 다역을 맡은 박현희 회원은 최우수연기상을 받으며 열정을 증명했다.

이 같은 성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단 한순간의 무대를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였다. 정기적으로 모여 대본을 읽고, 발음과 호흡을 맞추며 장면을 몸에 익힌다. 공연이 가까워질수록 모임의 밀도는 더 높아진다. 역사극은 특히 준비할 것이 많다. 의상과 소품, 무대 연출까지 손이 많이 간다. 하지만 그 과정을 '부담'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며, 대부분의 준비 과정을 손수 만들며 무대를 완성한다. 고마동창생의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사람'임을 알기에 이들은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기꺼이 두팔 벌려 맞이한다.

연극이 처음이어도, 무대가 낯설어도 괜찮다. 문을 두드리면 따뜻하게 품어주고 대사 한줄이라도 무대에서 읊을 기회를 준다. 그런 고마동창생의 무대는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 나이와 성별, 연극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연극을 사랑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오늘도 고마동창생은 공주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발굴해 무대에 올리려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만드는 연극은 어찌면, 우리 모두의 삶이며 역사임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따뜻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오경숙 회장

고마동창생을 통해 잊고 있던 저만의 꿈을 다시 찾았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본 리딩에 몰입하고 굳어 있던 몸짓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땀뻑한 연습과 정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기분 좋은 설렘을 앞으로도 고마동창생과 오래도록 함께하며 무대 위 꿈을 계속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박현희 회원

우금티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며 공주 동학의 가치를 알려온 만큼, 그 마음을 담아 창작극 '공주, 동학을 펼치다'를 무대에 올릴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해설사로서 말로 전하던 메시지를 이제는 무대 위에서 더욱 생생하게 전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해 준 고마동창생과 함께, 이 의미 있는 여정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12·13기 공주시 SNS 서포터즈 박혜정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신관 전시회

‘탄자니아, 지구 반대편의 날들’



지난 2025년 7월 개관한 나태주풀꽃문학관 신관에서 ‘한여름의 탄자니아’ 전시가 한창입니다. 시(詩)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탄자니아를 찾았던 8월은 우기가 끝난 건기로, 붉은 흙먼지와 뜨거운 햇볕이 일상을 채우던 계절이었습니다. 계절도, 온도도 전혀 다른 두곳의 시간이 이번 기획전시 ‘탄자니아, 지구 반대편의 날들’을 통해 공주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합니다.

나태주풀꽃문학관 신관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탄자니아, 지구 반대편의 날들’이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나태주 시인이 2024년 8월,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직접 방문하며 보고 느낀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여행은 관광이 아닌 2019년부터 후원해 온 소녀 네마 니코데무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탄자니아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에티오피아를 거쳐 킬리만자로 공항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긴 이동 끝에 도착한 곳은 붉은 흙먼지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나태주풀꽃문학관 전시 안내

전 시 명 탄자니아, 지구 반대편의 날들

전시기간 2025. 12. 26.(금) ~ 2026. 05. 30.(토)

관람시간 10:00~17:30 ※ 매주 월요일, 신정, 명절 당일 휴관

문의 041-881-2708



전시 안내 QR스캔

지프차를 타고 이동하며 마주한 풍경 속에는 먼지를 뒤집어쓴 채 학교로 걸어가는 아이들, 소와 염소를 몰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그 속에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전시에는 나태주 시인이 일일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수업을 나눈 장면, 사진으로만 보아 오던 후원 소녀를 직접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가장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전시를 보는 내내 화면 너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꼭 직접 가보고 싶은 탄자니아의 풍경처럼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문학이 현실과 만날 때 얼마나 깊은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탄자니아, 지구 반대편의 날들’을 통해 시를 읽는 눈을 넘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다시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13기 공주시 SNS 서포터즈 임보름

알밤향 가득한 공주알밤센터

공주 여행 필수 코스!

공주 여행을 오신다면 필수 코스! 공주알밤센터를 찾았습니다.

공주알밤센터는 지역 특산물과 다양한 알밤 가공식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인들 선물을 구매하기에도 제격인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주 알밤 주산지답게 신선한 알밤과 막걸리, 떡, 요거트 등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내부는 우드톤의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으며, 1층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해 알밤막걸리, 밤요거트, 밤증류수, 밤떡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주알밤센터는 알밤 관련 전시도 함께 마련돼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 구매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주알밤센터에는 따스한 배려심이 돋보이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도 마련돼 있어 몸이 불편한 분들도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고마곰 캐릭터 머리띠와 공주시 향토 특산품인 알밤이 콕 콕 박힌 맛있는 마들렌도 진열돼 있습니다.



2층에는 구매한 제품을 바로 즐기며 창밖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공산성과 산성시장 사이에 위치해 두곳을 여행 코스로 묶어 들르기에 최적이지요.

저는 알밤막걸리, 알밤식혜, 벌떡주를 먹어봤는데, 알밤식혜는 일반 단맛과 달리 건강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막걸리와 기타 상품들도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이라 구경만으로도 즐거웠고, 특히 요거트 제품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맛과 멋, 체험과 쇼핑까지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주 여행 필수 코스.

귀여운 알밤 상품과 굿즈, 먹거리를 만나고 싶다면 공주알밤센터를 추천드립니다.



공주알밤센터

위 치 미나리2길 7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주말 10:00~20:00 ※월요일 휴무

문 의 041-881-9214

지방세 성실납세의 달 운영

지방세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공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으뜸납세자 선정 지원

- 대상 : 공주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법인 5개, 개인 5명)
- 내용 : 감사패 전달, 법인은 세무조사 2년 유예

◆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및 지급

- 선정 :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 한 납세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개인 500명)
- 경품 : 1인당 5만원(공주페이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 문의 : 세무과 ☎ 041-840-8152

공주시 의료·요양 통합지원 ‘통합돌봄’ 신청 안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 대상자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 ◆ 신청 기간 : 2026. 3. 27.(금) 부터
- ◆ 신청 절차

신청 상담	»	접수 완료	»	선정 통지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종결		
- ◆ 선정 기준 : 도움필요점수에 따른 선별 선정
- ◆ 서비스 내용 : 의료·요양·돌봄 등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
-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경로장애인과 ☎ 041-840-8320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안내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소아경증환자가 평일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의료기관

- ◆ 운영병원 : 엔젤소아청소년과의원(번영로 124, 2층)
- ◆ 이용대상 : 소아경증환자(18세 이하)
- ◆ 운영시간 : 평일 08:30 ~ 23:00 주말·공휴일 08:30 ~ 18:00
- ※ 의료기관 사정으로 임시 휴진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
- ◆ 문의 : 공주시보건소 : 041-840-3222 / 엔젤소아청소년과의원 : 041-840-1004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 안내

- ◆ 모집 기간 : 2026. 1월 ~ 12월
- ◆ 지원 대상 : 공주시 거주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여성 청소년 중 신청자
- ◆ 선정 기준
 - 2026. 1. 1. 이후 공주에 주소를 둔 여성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 월경곤란증 한방치료에 학생과 보호자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경우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확인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거주지 확인용)
- ◆ 지원내용 : 3개월(월 2회 이상) 한의원 방문 치료비(50만원) 지원
 - ※ 시술(침·뜸·경락검사·부항·한방물리요법 등), 투약(한제·산제·탕약 등)
- ◆ 문의 : 공주시보건소 ☎ 041-840-3246, 3264

2026년 청년구직자 면접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 모집 기간 : 2026. 2. 2(월) ~ 2026. 12. 15(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구직자
 - ※ 26년 기준 : 1980. 1. 1. ~ 2007. 12. 31. 출생자
 -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증빙서류 제출 필수)
- ◆ 지원 내용 : 면접비 1회당 5만원 정액 지원
- ◆ 지원 한도 : 1인당 최대 4회(최대 20만원)
- ◆ 접수 방법
 - 공주시일자리센터 직접 방문(번영로 46.4층)
 - 이메일 접수(simbi1028@korea.kr)
- ◆ 문의 : 공주시일자리센터 ☎ 041-840-8089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 잊지 말고 챙기세요!

◆ 국가암검진 대상

암 종류	검진주기	검진대상(짝수년도 출생자)
위암	2년	40세 이상
간암	6개월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50세 이상
유방암	2년	50세 이상
자궁경부암	2년	50세 이상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 폐암 발생 고위험군

◆ 찾아가는 읍·면 지역 이동건강검진 3월 일정

3. 17.(화), 30.(월)	3. 18.(수)	3. 19.(목)	3. 20.(금)	3. 23.(월)
유구문화의집	계룡보건지소	탄천보건지소	우성보건지소	이인보건지소
3. 24.(화)	3. 25.(수)	3. 26.(목)	3. 27.(금)	3. 31.(화)
신흥보건지소	사곡보건지소	정안보건지소	의당보건지소	반포보건지소

- 검진 시간 : 7:30 ~ 11:00 ※ 3. 31.(화) 반포보건지소 7:00 ~ 10:30

- 2026년 검진대상자(성인병 질환·국가암·일반건강검진)는 전날 오후 21시부터 금식, 신분증 지참해 방문

조회 하기 ▶



◆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 자주 찾는 서비스 '건강검진 대상 조회' 클릭

◆ 관내 일반건강검진 병·의원 안내(사전 예약 후 방문)

공주서울내과의원(☎ 041-853-7582), 성보의원(☎ 041-856-8275) 속튼튼내과의원(☎ 041-854-8883), 희망내과의원(☎ 041-881-8575)
연세탑내과의원(☎ 041-400-8275), 오내과의원(☎ 041-854-9900), 제일의원(☎ 041-841-0852), 좋은내과의원(☎ 041-853-2100),
중앙유내과의원(☎ 041-852-8806),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041-962-1232), 필내과의원(☎ 041-855-0830)

◆ 문 의

공주시보건소 ☎ 041-840-3266,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작은 실천으로 지키는 건강! 일상 속 암 예방 수칙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공주시 시민 기자 소식을 한눈에



권호진(신관동)

공주시 한우 산업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

공주시 상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이 우성면 목천리에 준공됐다. 이 시설은 차량 하부 세척과 초미립자 연무 소독, 온도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역의 최전선이다.

핵심 역할은 명확하다. 외부 전염병 유입 차단, 소독 이력 관리에 기반한 방역 표준 절차 정착, 그리고 특정 시기에만 운영되던 방역 체계를 일상 행정 속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우 산업의 중심지인 우성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시설은 지역 산업의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그 효과는 시민의 삶으로 확장된다. 안정적인 방역은 지역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염병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가격 변동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이는 결국 공주시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서현자(유구읍)

공주의료원 치유의 그림 전시회 열려

지난 2월, 공주의료원 본관 1층 로비 힐링갤러리에서는 '꽃에게 말을 걸다'를 주제로 한 이정숙 개인전이 열려 화려한 꽃 그림들로 가득 찼다.

이번 전시회에는 환희를 담은 작약, 열정을 표현한 맨드라미, 그리움과 강인함을 담은 들국화, 행운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 그림이 선보였다. 무채색의 차가운 복도가 노란 해바라기와 화사한 들국화로 채워지며 환자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접수와 수납을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작품을 감상하며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의료원은 2016년 환우들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예술 공간을 마련한 이후 끊임 없이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가 추운 겨울 끝에 미리 찾아온 봄꽃 소식이 환자들에게 작은 행복과 완치에 대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 공주의료원 힐링갤러리는 1층 로비에 위치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예술을 통한 치유의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길은정(사곡면)

공주시 온누리시민이 되어 보자

온누리공주 시민증은 어디에 살든 가입이 가능하며, 등록만 하면 온누리공주 시민이 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온누리공주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되며, 14세 미만은 보호자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Syrup Wallet 앱에서 '온누리공주' 또는 '공주시'를 검색해 멤버십 카드를 추가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회원 가입 시 5,000마일리지가 즉시 적립되며(유효기간 2년), 마일리지는 고맷나루장터 농산물 구매 시 최대 50% 차감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석장리박물관 입장권 50%, 고마열차 20%, 공주하숙마을 숙박권 20%, 힐스포레 5%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주 여행 전 온누리공주 시민이 되어 가맹점 할인, 백제문화여행, 지정·관광 정보 제공 등 먹거리·볼거리·즐거거리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일석다조의 풍성한 만족감을 받아 가길 바란다.

최대 50%까지 혜택이 가능한 이곳! 올해는 공주시에서 맘껏 놀아보자. 유의 사항으로 탈퇴 후 7일 이내 재가입은 불가하며, 부정행위로 탈퇴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박영순(반포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연중 운영**

공주시에서는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정병원 담당 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충청남도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20분위 중 4분위까지 대상자(하위 20%·직장 7만 3,380원 이하, 지역 1만 5,830원 이하), 긴급지원대상자 등에 한한다.

지원 서비스로는 24시간 다인 간병 체계로 운영되며,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충청남도 공주의료원(2실 10병상)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은 연간 30일 안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필요 시 담당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령(신봉면)

**공주시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

학교 밖은 위험하다는 편견은 이제 넣어두자! 공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지역 청소년들의 ‘인생 2막’을 화끈하게 서포트한다.

꿈드림은 9세부터 24세까지, 학교라는 울타리를 잠시 벗어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곳이다. 검정고시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1:1 학습 멘토링과 인강 지원으로 ‘합격패스’를 선물하고, 대학 입시가 막막한 친구들에게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는 비밀 병기를 쥐어준다.

공부만 하냐고? 천만의 말씀! 내 적성을 찾아주는 직업 체험은 물론, 자격증 취득까지 도와주며 프로 자립러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준다. 여기에 3년마다 찾아오는 공짜 건강검진은 덤이다.

초·중학교 졸업장이 간절하다면 ‘꿈이음’ 사업으로 학력까지 챙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갓성비’ 센터가 아닐 수 없다. 꿈드림 관계자는 “학교 밖에서도 너희는 여전히 반짝이는 주인공”이라며, “망설이지 말고 1388로 전화해서 우리랑 같이 놀자!”고 유쾌한 초대장을 보냈다. 방구석 고민은 이제 그만, 지금 바로 꿈드림으로 ‘로그인’해 보자.



최종호(옥룡동)

**공주에서 대전까지 36km,
기준이 뭐야?**

도로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및 군에는 1개씩 도로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을 표시하는 도로원표(道路元標)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원표의 종류에는 진표와 이표가 있다.

진표는 실제 기준이 되는 곳이며, 이표는 도로원표를 기념하러 표시가 된 곳이다. 공주시 도로원표 진표는 중동사거리 정중앙(동경 127도 07분 36초 북위 36도 27분 12초)에 있다. 기념물인 이표는 2.55km 떨어진 신관동 금강둔치 삼거리 육교 앞에 설치돼 있다. 공주에서 다른 지역까지 거리는 도로 진표인 중동사거리 정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도로원표의 위치는 행정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 그 밖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에 따르면 공주시 도로원표를 정할 때 중동사거리가 공주시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대전의 진표는 서대전사거리 정중앙이다. 공주에서 대전까지 거리 36km는 중동사거리 정중앙에서 서대전사거리 정중앙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한편, 고속도로에서는 나들목(IC)이나 분기점(JC)을 기준으로 거리를 표시한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공주 30km’라는 이정표를 보았다면, 공주IC까지 거리가 30km 남았다는 뜻이다.



“ 씨름의 메카 공주 ” 공주시의회, 공주시 씨름단 재창단 ‘청사진’ 그렸다



공주시의회 의정토론회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지난 9일 오후 2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좌장을 맡은 이상표 의원과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씨름의 아이콘’ 김기태 영암군민속씨름단 감독, 손한동 충남씨름협회장, 이일주 공주문화원장 등 대한민국 씨름계와 지역 문화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주시 씨름단 재창단 및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신관초-봉황중-생명과학고로 이어지는 전국 최강의 인프라를 갖추고도, 성인팀 부재로 우리 아이들을 타 지자체에 뺏기는 ‘공주 패러독스’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운동부 창단을 넘어, 씨름을 공주 관광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앵커 시설이자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적 결단의 자리”라고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준희 회장은 “공주는 씨름의 본고장에서 재창단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진단하며, “거창한 전용 경기장 건립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팀 그 자체다. 기존 학교 인프라를 활용해 초기 비용을 줄이고, 협회 차원에서 전국 대회 유치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면 공주는 단숨에 ‘씨름의 성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언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 손한동 회장은 지역 체육계의 뼈아픈 현실을 토로하며 재창단의 명분에 힘을 실었다. 손 회장은 “지난 2008년 팀 해체 이후 18년 동안, 우리는 공주의 아이들이 타지 유니폼을 입고 장사에 등극하는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봐야만 했다”며 “씨름단 재창단은 끊어진 ‘지역 인재 육성의 선순환 고리’를 복원하는 역사적 책무”라고 호소해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일주 원장은 씨름을 ‘문화 산업’으로 확장하는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공주의 역사성과 씨름의 전통성을 결합해 백제 문화제 기간에 ‘상설 씨름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미국 LA 박형만 이사장 등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와 연계한다면, 공주 씨름단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방송과 현장을 넘나드는 승부사 김기태 감독은 철저한 ‘경제 논리’로 집행부의 예산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감독은 “씨름단 운영비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하며, “영암군이 씨름단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완판시켰듯, ‘공주 알밤’ 브랜드를 씨름단과 연계해 마케팅한다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운영비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안내

일 정 : 3. 16.(월) ~ 3. 30.(월) / 15일간
장 소 : 본회의장 및 상임위, 특위 회의실
방청안내 : 041-840-8015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공주시의회 부의장
이용성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 정말 필요한 분들께 가고 있습니까?



#공공근로개선

#선별복지강화

#노인일자리개편

#기회형평성

#공정한기준

공공근로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 몸은 힘들지만 손놓을 수 없는 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는 이 사업의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이런 민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 “연금 받는 분도 공공근로를 하십니다.”, “퇴직 후 소득이 있는 분들이 계속 선정됩니다.”, “정작 정말 어려운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한사람이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현실은 소득 기준은 형식적이고 재산 기준은 느슨하며 실제 생활 형편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별 복지가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의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할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말, 틀리지 않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 꼭 필요한 분들께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즉, 공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또는 일정수준의 고정소득이 있는 분을 당장 생활비가 막막한 분을 같은 선상에서 경쟁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공주시의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은 “누가 더 어려운가”가 아니라 “누가 더 요령 있는가”의 경쟁이 되어가고 있다.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이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지의 원칙이 흐려진 문제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소득·재산·연금 수령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선별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노인 일자리는 후순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단순 서류 심사가 아니라 읍면동 중심의 생활 실태 확인을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전환해야 한다. 서류상 소득이 아니라 실제 생활 형편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읍면동이다. 형식적인 점수표가 아니라 현장 확인을 통해 정말 절실한 분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구조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매년 반복 참여자에 대한 연속 참여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회가 특정인에게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같은 사람, 몇 년째 같은 사람”이라는 구조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취약계층은 영원히 진입하지 못한다. 연속 참여 횟수, 또는 일정 기간 참여 제한,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해야 할 때이다.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이다. 아울러 선의로 운영될 때 가장 먼저 왜곡된다. 그래서 반드시 원칙과 기준을 바로세워야 한다.

또한, 복지는 베풀수록 박수받는 정책이 아니라 때에 맞고 기준이 명확할수록 신뢰받는 정책이다.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이며, 그들의 시간이어야 한다.

공주시의 일자리 복지가 다시 원래의 자리,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을 간직하며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삶의 동력마저 잃게 만드는 결과는 결코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주시의회 의원
권경은



인구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한 공주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검토 촉구



#지방재정활용

#민생회복

#인구유출방지

#경기회복

#경제활력

공주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만 명’ 선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주시 인구는 9만 9,97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숫자는 공주시가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분명한 경고다.

이 위기 앞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공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공주는 더 빠른 속도로 하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겪는 문제라는 말이 공주시의 위기를 덜어주지는 않는다. 10만명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공주시를 지탱해 오던 상징적 숫자이다. 이것은 공주시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 침체와 맞물려 하나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은 무너진다. 일자리와 활력이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공주시를 떠난다. 지역 쇠퇴의 악순환이고 구조적 위기 상황이다. 대기업 기반이 약하고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공주시는 이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 현장에서 한목소리로 말한다. 식당 매출도 줄었고, 배달도 줄어들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공주시 사업자의 연간 폐업률이 약 12%에 달했다고 한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도 현금성 지원과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인근 청양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경기 광명

시, 충남 금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아무런 대응이 없는 공주시는 상대적으로 인구 유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금의 무대응은 곧 하나의 선택이 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공주시의 미래로 돌아올 것이다.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두가지 위기 앞에서 지금 우리는 한번 숨을 고르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시민들에게는 당장의 숨을 고를 시간을 주고,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당시,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고 골목 상점과 전통시장에 잠시나마 활기가 돌았던 경험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지역화폐 지원금은 곧바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공주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공주시는 지방채가 없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 25년 말 기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가용 재원은 약 264억 정도라고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재정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써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활용해야 할 시기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이미 현실이 된 인구 위기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하나의 악순환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지금의 결단이 공주의 하락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방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임규연



“
종이에서
디지털로,
민원 신청의
기준을 바꿉니다
”

#디지털전환

#인공지능시대

#스마트도시공주

#스마트행정

#공주미래전략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섰다. 사회 곳곳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도 바뀌고 있다. 빠르고 간단한 절차, 한번에 끝나는 서비스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방향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더 빠르게 확산시킬 전망이다.

공주시 역시 이러한 국가적 발전 방향에 발맞춰 스마트도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 기술부터 스마트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까지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며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행정서비스는 과연 편해졌는지 의문이 든다. 시민이 행정 서비스를 가장 가까워서 체감하는 곳은 바로 민원실이다. 즉, 민원실에서의 경험이 행정의 인상을 결정하고, 민원서비스의 개선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는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민원실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종이 서식, 반복 기재, 창구 대기는 여전히다. 시민은 기본 인적사항을 여러 신청서에 반복해서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 역시 그 내용을 재입력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답답함을 느끼고, 공무원은 반복되는 업무로 부담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민원서비스의 품질은 저하되고 민원 만족도는 하락하는 원인이 된다.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도 시사점을 준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공주시는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유가 무엇일까? 시민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운영 개선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즉, 도시의 시설은 발전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서비스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주시 공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도시 구축의 완성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민원실의 시범 사업을 제안한다. 핵심은 단순하다. 먼저, 민원실 및 공주시 누리집에 주요 민원신청서의 서식을 QR코드로 제공한다. 시민들은 민원실 방문 이전에 제공된 QR코드를 통해 전자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이후 민원창구에서는 작성된 서식을 QR코드 스캔을 통해 전송받아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시민들은 장소에 구애 없이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미리 작성된 전자 서식을 QR코드 스캔을 통해 확인함에 따라 전산 재입력 및 단순 반복 업무가 감소하여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민원실 현장 안내를 강화하여 기존의 작성 방식도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해당 시범 사업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민원실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주시 행정 혁신을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순히 디지털 전환의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닌 시민의 일상에서 분명한 ‘만족’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한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

이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3 M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026. 5. 30.(토)
한서형 캘리그래피전
<잠시, 향>
나태주풀꽃문학관



2
기획 전시
<탄자니아, 지구 반대편의 날들>
나태주풀꽃문학관



3

4

5



7
3.7.(토) 17:00
최수호x유태평양x역스
<빅3 콘서트>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10

11

12

13
3.13.(금) 15:00
바드 인사이트
인문학 강의
<지휘자, 클래식 읽기>
바드챔버하우스 알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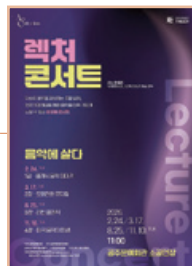
14
3.14.(토) 15:00
화이트데이 콘서트
<재즈&러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15

16

17
3.17.(화) 11:00
렉처 콘서트 II
<오페라와 뮤지컬>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



18

19

22

23

25

26

27
3.27.(금) 19:30
명곡 시리즈 I
<백건우 & 브람스>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28
3.28.(토) 11:00
<사백년 인절미축제>
산성시장문화공원

3.28.(토) 17:00
양상블 패치워크
<봄,바라기>
바드챔버하우스아트홀



공주문예회관 041-852-0858 바드챔버하우스 041-841-2224 나태주풀꽃문학관 041-881-2708

공연 및 전시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사백년 **인절미 축제**

2026. 3. 28. | 토 ~ 29. | 일 11:00 - 18:00 2일간

공주시 용당길 | 공산성매표소 옆 | 산성시장문화공원

주관·후원 공주시, 공주활력지원센터(상권활력팀), 산성시장상인회, 공산성상인회, 공주인절미협회, 우성면목천2리, 웅진동주민자치회

따뜻한 기부 소식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 현황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73		복지정책과 041-840-8792	
2026년 1월 기부금 총액 10,773,700 원 / 105명		2026년 1월 기부금 총액(현금, 현물) 492,925,112 원 / 31건 <small>* 총 금액은 각 읍면동 특별 모금(현금·현물)을 합산</small>	
기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오프라인 전국 NH농협 창구 	현금 174,080,000 원 / 19건 (주)에스알에너지, 태양건축사사무소, 공주시건축사회, (주)덕운, 더불어민주당 공주지역위원회, 공주노인복지시설협의회, 공주화성파크드림 입주민일동, 금강이앤지, (주)미소에너지글로벌, 홍익산업(주), 공주폐차장, 백제새마을금고, 농업회사법인 공드림(주), (주)태영전기통신, 솔브레인나눔재단, (사)공주시새마을회, 전문건설협회공주지회, 은성가설산업, 기타 개인·기관·단체 등		
기부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44%, 2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지역의 답례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맏나루쌀, 공주밤, 알밤한우, 공주페이 등 	현물 96,158,800 원 / 12건 웅진동주민자치회, (주)삼흥고속, 대한한돈협회 공주지부(태성동물약품), 공주시축산연합회, NH농협공주시지부, 강창영, 소로빵집, 솔브레인 나눔재단, 양달가든, 애터미(주), 국일에프앤비, 기타 개인·기관·단체 등		
기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구치 치료 지원사업 고향에 계신 부모님(어르신) 이불빨래 대행사업 (지정기부) 관내 학교 야구부 지원사업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기부금 현황		
교육체육과 041-840-8643		
2026년 1월 기부금 총액 56건 / 3,879,000 원	일반 14건 / 3,510,000 원 개인 이재권, 김경미, 이용복, 김정섭, 박상현, 이찬, 김학도, 오재경, 임영미, 이지영, 신영각, 최창원 법인 정순곤법무사사무소, 공주시청년센터	공무원 42건 / 369,000 원

온누리공주시민제도

온누리공주는 공주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공주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누리공주  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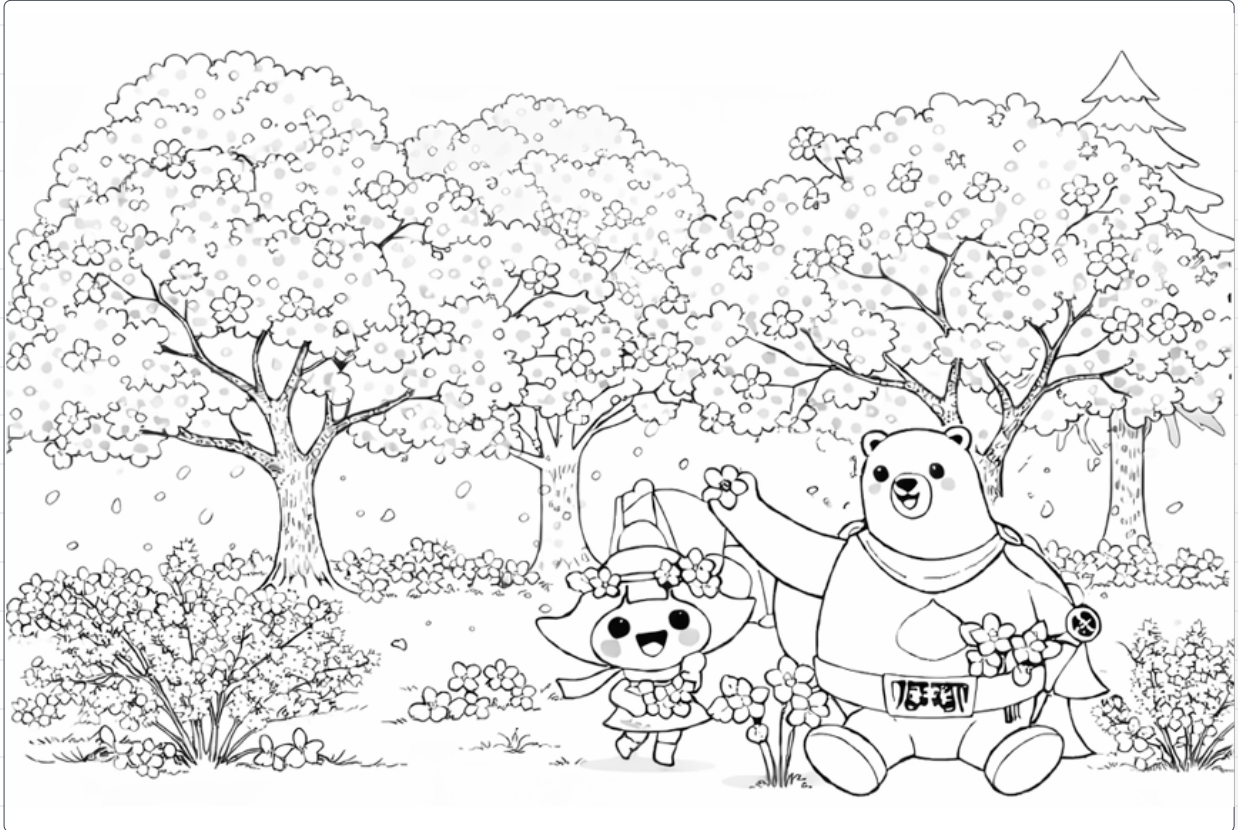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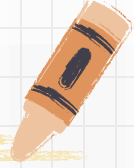
온누리공주시민 특별한 혜택

- 마일리지** 공주페이 전환 또는 고맏나루장터 사용(정회원 가입 시 5,000 마일리지 적립)
- 할인쿠폰** **쏘카 할인** (대여요금 50% 할인 / 공주시 내 쏘카존 이용 시) - 온누리공주 쿠폰함 쿠폰번호 확인 ▶ 쏘카 내쿠폰 쿠폰번호 등록



아이에게는 창의력을
어른에게는 힐링을 전하는 색칠 시간

색으로 피어나는 공주의 봄



"머물고 싶은 공주의 봄을 당신과 함께!"



정성껏 색칠한 그림과 함께 나만의 봄나들이 추억을 짧은 글로 들려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다음 호 '흥미진진 공주'에 게재되며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dnc-hq04@naver.com

※ 메일 본문에 성함, 연락처, 거주지역 (도시명), 사연을 함께 적어주세요.

응모 기한

3월 18일 (수) 까지



공주말,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추억 속 공주말을 문제로 만나봅니다!

공주말 학력고사

해당 문제는 '공주말사전'(이결재 위음)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Q. 다음 중 '느글거린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1. 촉감이 부드럽다.
2. 말이나 행동으로 빈정거리다.
3. 성미가 둥글고 순하다.
4.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롭다.

Q. 다음 중 '무덕스럽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1. 마음이나 태도가 자주 바뀐다
2.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다.
3. 행동이 투박하고 거칠다.
4. 일을 성의 없이 처리하다.

Q. 내가 알고 있는 공주 사투리,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 [예시] 매시럽다 - 저희 할머니가 즐겨 쓰시는 말이에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울 때' 이것 참 매시럽네~라고 하신답니다.

제출 기한 | 3월 18일(수)까지

☑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 거주 지역(도시명)을 함께 적어주세요.



답안지 제출